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선정'

익산시, 국토부 기본계획… 전주·군산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연계

익산시는 국토교통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은 약 2500억원이 투입되며 익산역 이용객이 새만금, 전주, 군산 등 전북지역 전역과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내·외버스, 택시 등과 연계하기 위해 진행된다.

확정된 국토부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구축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을 연계하는 환승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및 도내 5개 대학과 디지털농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서부내륙고속도로 잇는 대동맥 역할 하게 될 것"

익산 신지~영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21번 23번 국도와 연결

익산시는 오산면 신지~영만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일괄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는 사업비 18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오산면 신지리 21번 국도에서 영만리의 23번 국도와 연결된다.

연장 7.05㎞로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되며 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과 군산 간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횡등~오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수~평장 간 도로와 맞물려 지역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도로는 삼기에서 연무IC를 잇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시 건의를 시작해 2015년 전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 반영, 2018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오산 신지~영만과 서수~평장 국도우회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앞으로 건설될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디지털농업 분야 선도 '한마음'

군산대 소프트웨어학과, 농업기술원·도내 5개 대학과 협약

군산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이하 소프트웨어학과)는 최근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과 도내 6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한국농수산대학) 간 디지털농업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은 ▲디지털농업 분야 지역 인재양성 ▲디지털농업 연구개발·현장확산 ▲디지털 농업 분야의 관련 시설물 이용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농업은 IT와 농업의 융복합 산업인 만큼 협약에는 농과대학 3곳, AI 관련 공과대학 3곳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의 농업 기술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 디지털농업 분야의 현안에 대응하고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은 "앞서 체결한 도내 디지털농업 산·연·관 거버넌스 구축에 이번 도내 6개 대학의 MOU를 더한 학·산·연·관의 모범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농업과 IT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디지털농업 인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도전과 열정이 있는 젊고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석훈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과로, 이번에 구축될 스마트 온실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수집될 빅데이터 센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배달서비스 연중 운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 및 고령농, 영세농 등의 농기계 수요에 발맞춰 지난 2018년부터 관리기, 콩 탈곡기 등 자주 사용되는 12종의 농기계를 구입가의 1%, 최대 3만 원에 대여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고 농작업 후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해주는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기종은 자체 동력으로 이동 가능한 굴삭기, 트랙터 등과 부착용 작업기, 배달용 1톤 차량에 탑재 불가능한 농기계 등이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면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만 배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농기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 농번기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휴일근무 실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협 등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장비 중 위험빈도가 높은 기종 및 자주식 농기계(35종 166대)에 대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지원계(☎063-454-523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제일중, 금강미래체험관 전교생 순환 교육

군산금강미래체험관(이하 미래체험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군산제일중학교(교장 엄기윤) 2학기 개학식날(23일) 전교생(19개학급 532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기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쓰레기 재활용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일중학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수업은 미래체험관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들이 제일중학교에 출강해 교실별로 한 시간씩 진행됐으며 수업 내용은 자원순환의 개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군산의 쓰레기처리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뤘다.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동을 알려주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드림스타트 외부슈퍼비전 회의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고난이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외부 슈퍼비전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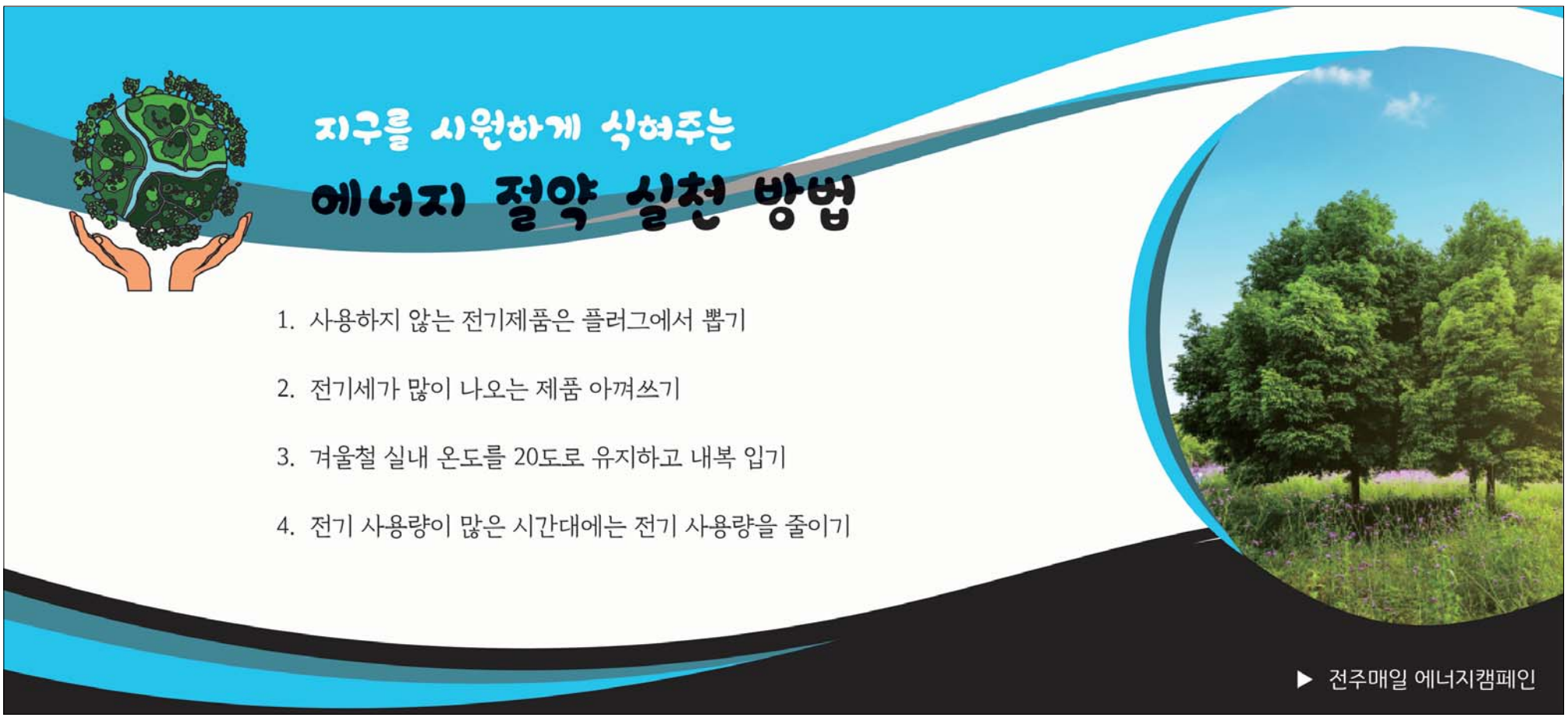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는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민숙 기관장,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이화 부센터장,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정 센터장, 고유선심리연구소 고유선 소장으로 구성된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사례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욕구?문제점, 연계기관과의 연계상황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청취했으며, 사례관리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한편 시 드림스타트는 교육, 심리, 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부 슈퍼비전을 의뢰해 자문을 받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정담순대,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가져

군산시 흥남동은 정담순대(대표 김희순)가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의 뜻을 밝혀 26일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정담순대는 흥남동 22호점이 탄생했다. 착한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최소 3만원 이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뜻하는 사랑의 열매 기부 프로그램이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희순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고민하던 중에 착한가게라는 캠페인을 알게 됐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이용권을 매월 20장씩 흥남동에 기탁 하는 등 평소 따뜻한 식사 나눔 봉사를 실천해왔다. /군산=남현봉기자